

사서
고생하는
그들의

신나는 이야기

마을을 이롭게,
마을을 따뜻하게 만드는
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

DAEDEOK-GU
COMMUNITY
PROJECT

다덕구
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

자서전 전문
추억의 뜰

“



우리 공동체 지원센터도
오후 6시부터 또 일을 시작한다.

웃음보가 터질 준비를 늘 하고 있기에
야근이라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
단어들이 자주 오르내림에도 불구하고
우리는 힘을 잃지 않는다.

달 보며 퇴근하고 퇴근 인증샷에는
달님이 휴대폰 갤러리에 압전히 앉았다.
별을 빗 삼아 퇴근하는 날도 허다하다.

우리는 왜 하루종일 일을 할까?

하지만
웃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니
신나는 일도
더러 있는 모양이다.

추천사 |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장 홍은영

”

대덕구 공동체 프로젝트

사서 고생하는 그들의 신나는 이야기

다덕구
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

대덕구
공동체 프로젝트

사서
고생하는
그들의

신나는 이야기

마을을 이롭게,
마을을 따뜻하게,
대덕구
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

DAEDEOK-GU
COMMUNITY
PROJECT

사서
고생하는
그들의

신나는
이야기

DAEDEOK-GU
COMMUNITY
PROJECT

자서전 전문
추억의 뜰

다덕구
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
DAEDEOK-GU COMMUNITY SUPPORT CENTER